

대학생의 세대변화에 적응하기

유재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대학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한 지도 4반세기가 넘었다. 짧은 세월은 아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이지만 대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에 견주어 본다면 그 동안 여러 세대를 거처온 느낌이다.

그럼에도 평소에는 '예나 이제나 대학생은 모두 같은 대학생이겠거니' 하고 지낸다. 언제나 같은 또래의 젊은 이들을 대하다 보니 연령이 주는 세대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일상의 타성 탓도 크리라 여긴다. 그러다가 문득문득 세대차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생겨야 비로소 세대의 변화를 절감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변화에 적응해야 되겠다고 깨닫는다. 그러나 그들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동화되기는 매우 힘든 현실을 절감하곤 한다.

대학생들과의 세대차를 가장 크게 실감하게 만드는 것은 날이 갈수록 필자와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강의시간에 유신체제나 '80년의 5·18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요즘 대학생들은 지나간 먼 역사 속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기색이 역력하다. 하물며 4·19나 5·16 또는 6·25 쯤 되면 더 말할 나위조차 없다. 그러니 학생들이 그러한 우리 역사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으리라는 착각을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생경해하는 반응을 보고서야 그들이 '70년대 말에 태어난 세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제야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강의내용으로 되돌아간다.

대학생들과의 세대차를 절감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현상은 이른바 영상세대의 특성이다. 영상매체를 주로 접하며 성장해 온 지금의 대학생들은 인쇄매체를 주로 접해 온 세대와는 판이한 행태를 보인다. 즉, 인쇄매체를 주로 접하며 성장한 세대는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하며, 분석적이며 논리적이다. 반면 영상세대는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행동하며,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이기보다 전체를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말하자면 인쇄매체세대는 관념형인데 비해 영상세대는 감각형이라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이러한 대학생 세대의 변화는 시대에 따라 어떤 특성을 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70년대 학생들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방향한 세대'라면 '80년대의 대학생들은 의문을 제기하기 보다 주장을 앞세웠으며 또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해 버리는 특성을 지녔던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비해 '90년대 대학생

들은 감각적이고 관능적이기까지 하며 의문을 제기하는 유형과는 거리가 멀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은 기피하는 세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세대는 끊임없이 변해온 데 비해 교수들은 얼마나 그와 같은 변화에 스스로 대응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교수들도 연령에 따라 그 시대의 대학생들과 경험을 공유하거나 그 세대의 변화에 잘 적응해 온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 전반을 볼 때 교수들이 학생세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교수들이 변화하는 학생세대의 가치관이나 행동규범에 얼마나 적응해 왔는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요구는 지나친 강요이며 현실적으로 실현성도 없다.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사이에 가치관이나 규범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그들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대학생세대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 또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인 대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방법이나 교재를 개발하는 데 교수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시청각기재의 활용, 컴퓨터화, 인터넷 강의 등 팔목할 만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육기자재 즉, 하드웨어의 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부문에서 과연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는 자성해 볼 만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교과서는 눈에 띄게 영상세대에 부응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서술해 주고, 사진이나 그래픽을 대폭 활용하며 컬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대학 교과서는 인쇄매체시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학문의 영역에 따라 물론 영상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

아에서도 그런 노력이 크게 부진하다.

교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우리의 출판산업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예 판을 다시 짜야하고, 사진이나 그래픽을 활용하거나 컬러인쇄를 하면 생산원가가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이를 기피하는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학생들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이유에 안주해 버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영상세대에 부응하는 교재를 개발하고 출판을 요구한다면 출판산업의 기득권 쟁기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면 찾아진다. 대학의 구내서점에서 사용된 교과서를 다시 구입하여 판매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물자가 혼란 미국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쓰던 책을 대학구내서점에서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이 우리 대학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학당국이 하기 나름일 것이다.

교과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 강의에 필요한 영상교재가 거의 없다. 의학이나 과학 분야는 모르겠으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영상교재는 구입하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교수들은 방송통신대학이 개발한 교재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수요에 견주어 보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 5·18을 잘 모르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말로만 강의하는 것보다 현장 다큐멘터리나 당시의 신문·방송보도를 담은 시청각교재를 보여주는 것이 몇 배의 효과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 만든 영상 자료를 구입해 쓸 수도 있으나 사회과학의 경우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영상자료는 산업 분야에서 개발하고 제작해 판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측은 대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수들이 그 같은 교재를 산학협동으로 개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가 나설 수도 있으며, 몇몇 교수들이 모여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용 교재를 개발하는 출판업자들과 협동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요즘 '학습자위주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그 개념은 수요자 위주의 대학교육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단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의 시행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위주의 교수방법과 교재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교육의 수월성은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대학은 제 구실을 못하게 되고 말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학습자위주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전공분야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교수방법과 교재의 개발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그 간의 모든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제도의 개선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실질을 간과해 왔다는 반성에 근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각하면 할수록 교수방법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생각하기를 기피하고 감각적 자극에만 예민한 세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할 줄 모르는 세대를 대상으로 인류의 지적 유산을 전승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교육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교수방법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의 교수들은 이러한 상황을 고민해야 하고 적합한 방법을 고안해 내야만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이제는 과제를 줄 때에도 머리를 짜내야 한다. 웬만한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깔끔하고도 완벽하게 해내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에게 한자를 익히게 하기 위해 리포트에 되도록 한자를 많이 쓰도록 주문한 적이 있다. 리포트를 받아보니 놀랍게도

제대로 한자를 많이 쓴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과제를 주면서 컴퓨터가 한자표기를 해결해 준다는 점을 잠시 생각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원고지에 글을 써서 내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교수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과제를 인터넷상에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편집만 해 오는 것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의문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즉, 인터넷에만 의존해서는 과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구사하기 전에는, 자료를 잘 찾아 편집을 요령 있게 잘하는 기술자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교수는 그 과제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모든 자료를 검색하여 알고 있지 않는 한, 과제 수행의 창의적 노력 여부를 가려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 또한 교수방법의 부담이 되고 있다.

학생세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일이 사실상 대학사회에서 중요한 일로 부각되지 못한 것이 과거 우리 대학의 현실이었다. 교수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현실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수요자 위주의 교육 때문만은 아니다. 효과적인 전달방법이야말로 교수의 일차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수방법은 학생세대의 변화하는 성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에서 '학생세대의 변화에 적응하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효과적이며 적합한 교수방법과 영상교재의 개발에 교수사회는 물론 교육개혁 프로그램 관계자들도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 

유재천

서울대 사회학과와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경희대 교수, 서강대 사회과학대학장, 한국언론학회장, 한국방송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한국의 언론」,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민중」,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북한의 언론」, 「매스미디어 조사방법론」(역서) 등이 있다.